

아동권리와 그와 관련된 방송 매체의 오도들 : 새 천년을 맞이하는 전환점에서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의 전환

Bob Franklin*

십년 전에 유엔이 처음으로 아동권리조약을 채택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새천년의 시작을 맞이하는 이때에 아동 권한을 확장하는 것은 필요불가결하고 시급한 일이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영국 방송 매체의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보도는 대중의 아동과 아동기에 대한 인식을 급격하게 전환시켰다. 방송 매체는 더 이상 아동들을 지역사회 내에서 상처 입기 쉽고,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있는 대상으로 표현하지 않는다. 이와 반대로, 방송 매체는 청소년에 대해 동계 밖의 “악적 존재”로 묘사하고 있어, 이러한 보도는 대중 다수가 이제 아동과 청소년들로부터 지역사회를 보호해야 할 때라는 의견을 형성하도록 분위기 조성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인식 전환은 영국 상황에서 아동 권한 확장에 대한 논의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아동이 의사 결정에 참여할, 정치적 결정권을 포함하여, 권한이 있다는 논쟁은 의견이 분분하다. 아동의 권한에 대한 대부분의 논의들은 그 성격상 철학적이며, 개념적이고, 아동권한에 대한 판례를 세우고(Worsfeld, 1974; Watson, 1980; Hoyle and Evans, 1989; Franklin, 1995 and Freeman, 1983 and 1988), 아동권한을 정교한 개요들로 만들고(Hart, 1992; Wald, 1979; Rogers and Wrightsman, 1978), 아동권의 정치적 권한을 확장하기 위해 논쟁하고(Harris, 1983; Holt, 1975; Franklin, 1986), 정치·경제에서의 연령 차별주의에 대해 밝히고(Franklin and Franklin, 1990), 아동권한에 대한 요구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들이다(Scarre, 1980). 최근에 들어 아동권의 확보를 위해 제안되고 시도된 제도와 절차들에 대해 토론하는 문헌들이 증가해왔다(Flekkoy, 1991; Franklin, 1995, Franklin and Franklin, 1996; Newell and Rosenbawn, 1990 and Verhellen, 1999). 본 글은 계속되는 아동의 참여권에 대한 논쟁과 의사결정자로서 아동이 능력있고, 또한 그러한 자격이 있는지 중요하고 어려운 질문들에 대해 논의하고

* 영국 셰필드대학교 사회학부 교수

자 한다. 광범위하게 논의될 질문을 표현해 보자면, ‘아동들은 그들의 인생에 영향을 미칠 결정들에 대해 참여할 권한이 있는가?’이다.

공리공론, 정책결정, 그리고 행사 영역에서 상당 부분 축소된 권한 행사로 고통받아온 아동 권한과 청소년 권한을 성취하는 길을 조망해 보고자 한다. 1990년 동안 대중의 아동과 아동기에 대한 인식의 급진적 그리고 중요한 변화는 이러한 축소된 권한을 예고했으며, 이러한 현상은 방송 매체의 증가되는 아동에 대한 선입견과 아동·청소년에 대해 끊임 없이 부정적이고 적대적으로 보도하는 방송 매체의 경향을 반영한다(Muncie, 1999; West, 1999). 결과적으로 아동권에 대한 논의는 정치적으로 적절치 못한 분위기에서 행해져왔다. 1989년 아동결의서에서는 아동권을 보호하고 참여권에 대한 제시를 하여주었지만, 90년대 말에는 아동·청소년에 대해 통행 금지령 부여를 제안하고 청소년 범죄자를 위한 교도소-미국의 “신병훈련소boot camps”와 같은 격인-와 전자 추적 장치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는 등 대중 여론과 정부 정책이 더욱 권위적이 되고 있다. 1989년 아동결의서the Children Act같은 정책은 지역사회 안에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작성되었으나, 최근에는 지역사회를 아동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정책으로 대치되고 있다. 가늠해보건대, 1990년대는 아동과 그들의 권한을 위한 또 다른 분할점으로 판단될 것이다.

I. 아동권에 대한 논의: “상식”, 편견 혹은 숙지된 논쟁?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은 UN의 아동권리조약에 있는 좋은 의도에도 불구하고, 성인에게 있어서는 당연히 부여되는 민주적 삶의 기본이라 하는 자신의 의사 결정에 참여할 권한들이 모든 사회의 아동들에게는 아직도 부인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권한의 부정은 공공교육현장에서, 지역 내 양육형태 결정에 대하여, 그리고 사적인 가정 현장에서 동시에 일어날 수 있다. 조약들이 가정 안에서 아동권을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그 문제성은 더 심각하다. 경찰이 닫힌 대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지 알아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아동의 의사 결정권은 집안에서 아동이 무슨 TV프로그램을 시청할지, 몇 시에 잠을 잘지, 어떤 옷을 입을 지와 같은 작은 결정에서 사생활 보호의 권리, 모임의 권리, 학교에서 교과 과정 선정에 참여할 권리, 그리고 투표할 권리 등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것에 이른다.

아동권의 부정은 우리의 현실이다. 이러한 권리 제한이 정당한 것인가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하지만, 아동의 참여권이나 의사 결정자로서의 권한을 제한하려는 사람들은 논의 자체를 회피한다. 너무나도 자주 그들의 편견으로 인한 비합리적이고 그릇된 사고는 ‘상식’으로 잘못 포장되어있다. 합리적 논쟁이 이런 ‘상식’을 대신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관련된 측면을 살펴보아야 한다. 첫째, 아동은 이성적이지 않고 합리적 그리고 견문 있는 결정을 내릴 능력이 없다고 단언하고 있다. 이로 인해, 아동이 행사할 능력이 없는 권한을 부여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게 된다. 두 번째, 아동의 경험 부족으로 인해 지혜가 부족함으로 결과적으로 실수를 하기 쉽다는 것이다. 아동이 자신들을 위한 결정을 할 권한을 부인함으로써, 사회는 아동의 무능력으로부터 그들을 단지 보호해 주려고 시도하는 듯하다. 성인들은 아동들이 결정을 할 수 없다고 믿는 듯하다. 영국의 소설가 DH Lawrence로렌스가 그의 교육에 대한 드문 수필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우리는 우리의 아이들을 교육해야만 한다. 그 의미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결정을 해줘야 한다. 조그만 지미에게 “너 뭘 원하니, 지미야”라고 묻는 것은 전혀 소용없는 짓이다. 왜냐하면, 작은 지미는 뭐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이다. 만약 지미가 자신이 뭘 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단지 일반적으로 그가 그의 머리 안에 아주 보잘것없는 양의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리를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겠는가?

아동 자유 옹호자들은 적어도 8가지 의의를 제기 할 것이다. 첫째, 단순히 아동들이 잘못된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결정을 내릴 기회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옳지 않다. 옳은 일을 해야 하는 권한과, 무엇에 대해 할 권한이 있는 것을 혼돈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잘못된 결정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정말 우리는 성인들이 심지어 그들에게 해로운 활동을 하는 것까지 묵인할 때가 종종 있다. 흡연이 그 명백한 예이다. 두 번째 이중잣대 사용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른들도 숙련된 의사 결정자가 아니다. 그들도 물론 실수를 범해, 가끔은 그 실수로 인해 광범위한 그리고 후회스러운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역사를 숙시(熟視)해봐도 성인들의 실수부터 인간의 오류에 이르기까지 여러 유형들이 나타난다: 전쟁, 기근, 마녀들의 화형, 핵무기, 인종 차별정책 등이 그 예들이다. 아동들의 실수할 권리를 부정하는 것은 어른들이 광범위하게 사용해온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다. 그것은 매우 위선적일 수 있다.

세 번째, 실수를 전부 부정적으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수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경험을 이해해야 한다. 우리도 아동들에게 어른들처럼 실수로부터 배우고 결과적으로 얻은 지식과 경험 속에서 자랄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아동들에게 그들의 행동에 책임을 지도록 한다면, 그들의 결정 능력이 점점 향

상되리라는 예측은 타당하다. 결정권에 대한 자신감은 다른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실행 능력에 대한 타인의 기대와 평가가 많이 작용한다.

넷째, 아동들은 합리적 사고와 견문 넓은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 있음이 알려졌다. 어떤 TV프로그램을 시청할 지를 결정한다든지, 어느 축구팀을 응원할 것인지, 더 중요한 문제로 학교에서 집안에서 학대적 부모나 싸움 대장을 대처하는 전략을 발전시킨다면 지, 성적 학대의 경험이 있는 아동은 학대 경험을 폭로할 경우 가족들이 겪어야 할 결과에 대해 매우 복잡한 평가를 내려야 한다.

다섯째, 권한에 대한 나이 제한은 아동의 나이마다 다른 활동 분야에 따라 부모의 다른 책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논리 모순적이다. 아동이 10살이 되면, 범죄자로서 법적 책임을 질 나이가 되고, 16살이 되면 어른과 같은 이성간의 성행위를 할 수 있으나, 18살이 되어야 성인과 같은 정치권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나이 제한이 사회마다, 역사마다, 문화마다, 다르기 때문에 나이에 근거한 권한 제한은 상대적인 것이며, 따라서 상당히 임의적이다. ‘성인기’에 대한 이러한 다양한 이해는 불행한 모순을 가져오는 데, 걸프전에서 참전한 17살의 용사는 집을 떠나 전쟁터에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충분한 나이가 되었으나, 투표권자가 되기에는 너무 어리다고 한다.

여섯 번째, 나이에 관련된 권한 부여에의 논쟁은 궁극적으로 능력 여부에 관한 논의이다. 아동이 아동이기 때문에 의사 결정 참여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제안하는 것은 논쟁이 아니라 단순한 말의 반복일 뿐이다. 진정, 그 근간을 이루는 염려는 아동이 권리 행사에 필요한 능력이 부족할 것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진정 논의해야 할 점이 나이가 아닌, 능력의 문제라면 아동이 아니라 무능력자들의 권한을 제한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입장은 아동들뿐만 아니라 많은 성인들도 제외시키는 위험이 있고, 지식인층만을 포함한다는 인정할 수 없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예상과는 달리 아동의 제한이 지식인의식 *Eliticism*를 거론시키지는 않았다. 하지만, 참여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누가 결정할 것인가? 무엇이 능력을 결정하는 기준이 될 것인가? 능력을 시험 쳐보면 어떨까? Schrag가 말한 “자격 부여를 위한 적합한 시험을 거친 자”에 대한 요구들을 우리는 받아들여야만 하는 가(Schrag, 1975: 452)?

일곱째, 의사 결정에서 아동을 제외하는 것은 불공평하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18세 미만은 그들을 제외시키는 상황을 바꾸기 위해 아무 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제한의 근거들이 우둔함, 교육이나 정보의 부족함 때문이라면 우둔한 자는 지혜로와 지기 위해 노력할 수 있고, 무교육자는 읽거나 배우기 위해 동기 부여 될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들은 설령 그렇게 바라도록 잘못 지도되었다 할

지라도, 너무 이른 시기에 성인으로 성장할 수는 없는 것이다. 나이에 근거한 제한은 아동들이 그 상황을 바꾸기 위해 아무 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불공평하다.

마지막으로, 18세이하의 누구든지 참여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아동의 지적·감정적 필요, 기술들, 능력들, 그리고 성취력의 다양성을 무시한 동일성을 가정한 것이다. 모든 아동을 ‘성인아님’ 유형에 포함하는 것은 각각 아동들이 다른 능력들을 가지고 있고, 그들의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고유 권한이 있음을 부인하는 것이다. 0세부터 18세사이의 인간은 가장 급속하고 광범위하게 신체, 감정, 그리고 지적 성장을 하고, 많은 양의 기술, 능력, 필요와 권한들을 요구한다. 그래서 인간의 출생부터 성인기 사이를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나이에 적절한 권리와 책임들을 요하는 영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그리고 청년기로 나눈다. 16세는 3살보다는 19세와 공통점이 더욱 많은 것으로 보이지만, 전통적 기준에 따르면, 16세와 3세는 똑같이 아동이다. 아동에 대한 ‘성인아님’은 편리하게도 아동기때에 존재하는 다양성을 가리우고, 18세이하의 필요와 권리의 동일성을 주장함에 따라 아동들의 권리 주장을 무시한다. 이런 권리 주장은 자조적으로 불합리한 것처럼 풍자되기도 한다. ‘뭘, 두 살을 위한 투표라고요?’ 요약하면, 아동의 의사결정제한에 대한 논쟁이 아동이 합리적이지 않거나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근거제시는 아동옹호주의자들에게 강하게 논쟁되었는데, 이들은 위의 생각이 편견을 통한 잘못된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상식’이라는 용어로 포장되었을 뿐이라고 했다. 1990년 초기부터의 아동에 대한 방송 매체의 보도는 아동들이 참여할 수 있는 권한 받을 자격이 없다는 상식화된 견해를 더욱 강화시키고 있다.

II. 방송 매체의 아동들에 대한 보호와 아동기에 대한 인식의 전환

영국에서 아동학대와 잔인성이 범죄행위로 정해진 것이 1889년의 일인데, 60여년후에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동물에 대한 학대와 잔인성에 대해 정해졌다. 영국의 동물에 대한 사랑은 전설적이지만, 이것이 영국의 아동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는 뭘 의미하는지 불분명하다. 다행히도 1980년대에는 아동의 권한이 갑자기 5가지 점에서 성숙하는 듯 했다.

지적으로, 아동권에 대한 논의는 존중을 받게 되었다. 아동이 아동권 부여를 주장할 수 있다는 생각은 복지 전문가들의 실행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 책정에

정보를 주는 법적인 의견이 되었다. 정치적으로는 아동권 주장이 주요 정당간의 정책 선언 영역에서 경쟁적으로 논의되었는데, 노동당은 1992년 선거를 위한 정책 선언에서 아동과 아동위원회를 위한 장관에 대한 제안을 하였고, 반면에 자유민주당은 아동의 선거 연령을 16세로 낮추겠다고 주장했다. 법적으로, ‘아동에게 최선의 관심’이란 개념은 어른들에 의해 결정되었는데, 적절한 때에 아동들의 바램이 법적 결정을 하는데 참고가 되기도 했다. 영국에서는 1989년 아동헌장이 아동이 자율적인 의사 결정자라는 것을 용인하고 인정해주는 좋은 법적 예를 제공해 준다. 기관적으로는 아동들의 법센터(전화도우미가 있는 옹호기관)의 발전과 구체적으로는 20개 이상 지역에 있는 지역 조사관처럼 아동 권리 감찰자의 임명이다. 국제적으로는, 아동권에 대한 유엔조약이 체결되어 국제적으로 아동의 기본권을 인정해주고 동의했다.

이러한 발전이 개선을 위한 큰 약속의 신호탄처럼 보였지만, 최근에는 아동권에 대한 반작용이 있어왔다. 1990년대에 걸쳐 영국에 있는 방송 매체들을 중심으로 조직적인 아동에 대한 도덕적 공포가 일어나, 모든 정치 영역에서 정치가들로부터 권위적 정책의 증가를 불러일으키게 하였다. 방송매체가 아동과 청소년의 이미지를 만들고 표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반향을 일으킨 3가지 중요한 신문 취재 기사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1990년 이후 아동에 대한 방송 매체의 보도는 아동의 다른 삶의 부분을 거의 제외한 범죄와 청소년 범법 행위에 대한 집중적 보도뿐이었다. 아동에 대한 보도는 일방적인 한 면에 치우쳤는데, 청소년 범죄자들, 강도, 침입자들, 마약 중독자들, 강간자들, 그리고 심지어는 살인자에 대한 것이었다. 대부분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방송 매체는 충분한 증거도 없이 그들이 경찰과 법원과 법체제와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는 이웃들의 통제를 넘어섰다고 단언하고 있다.

둘째, 청소년들보다는 아동들이 방송 보도의 중심에 서 있다. 신문들이 청소년들이 사회의 기본 가치와 안전을 위협하지 않는다면, 도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으며(Pearson, 1983), 최근의 보도 기사들은 더욱 어린 아동들을 다루고 있다. 방송 매체의 메시지는 명백하다. 청소년 범죄자가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이도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다. 마침내, 타블로이드판 신문은 충분한 증거 없이 몇몇 아동들의 잘못된 행위를 모든 아동들의 행위로 ‘죄악시’하며 일반화하고 있다.

아동에게 불리한 방송 보도는 1991년 영국 북동부 Tyneside의 Meadowell에서 일어난 도시 폭동들로부터 시작하여 즉각적으로 “쥐소년Rat Boy”-환풍창에 숨어살면서 체포를 피해 이런 별명을 얻은 “범죄의 물결을 이룬 한 소년”, 같은 “대도(大盜)들super criminals”로 옮겨갔다. ‘The Star’라는 일간지는 이와 비슷

한 범법 행위를 한 11살 범죄자에 대한 내용을 실었고, 이런 방송 매체의 보도는 일반 대중의 아동에 대한 근심을 증대시켰다. “우리는 아동들에게 지나치게 관대했다”고 신문은 주장했으며, “아동들은 작은 바지를 입은 부랑자들이 아니라, 순수한 모습을 지녀야 한다. 그러나, 지금 영국은 무섭게 폭발적인 아동 범죄를 경험하고 있다..... 너무나도 많은 아동들이 유모차에서 나오기가 바쁘게 무자비한 두건을 쓰고 있다”고 보도했다(Star 30 November 1992).

보도기관은 아동들이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통제를 벗어났다고 신랄하게 비난하였다. Express는 주요 기사로 “네살의 나이에 학교에서 쫓겨난” 남아에 대해 다루었는데, 그 남아는 다른 아동들을 때린 후 13일후 학교에서 추방되었다. 그의 아버지는 “단지 내 아들은 다른 애들과 마찬가지로 심술 맞는 것뿐이다”라고 고백했다. 하지만, Express는 이 소년에 대한 학교의 조급한 결정이 기록적인 것이 아니라고 날카롭게 가르키고 있다. 한 아동은 “학교 동교 첫날 퇴학 당해 그 다음날부터 경찰의 감시하에 들어갔다”(Daily Express 23 October 1993). 하지만, 진정 학교가 “위험한” 장소가 되고 있다는 인식을 사람들이 하게 된 계기는 교장 선생님 Philp Lawrence가 한 학생을 싸움대장으로 부터 보호하려다가 죽음을 맞이한 것이고, 그의 아내 Frances Lawrence가 청소년들이 올바른 시민이 되기 위한 교육을 받도록 해 달라는 열정적 탄원 때문이었다(The Times 21 October 1996).

이런 격한 분위기 속에서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두 가지 다른 사건들이 방송 매체의 상당한 시선을 붙잡았다. Time지에 Frances Lawrence여사에 대한 기사가 실린 다음날, Ridings & Manton학교들의 폐쇄는 아이들이 “통제 박을” 벗어났다는 선생님의 확인되지 않은 진술을 부추기고, 대중여론은 경찰들이 아이들을 억누르고 통제하도록 격분하였다(Lumley, 1998). Sun신문은 “한 여선생님이 14살난 남아로부터 성적 추행을 당했으며, 학교에서 이미 금지된 얼마나 부끄러운 공격이 악동들에 의해 행해지고, 온 교실이 난장판이 되어 선생님들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게 한다”라고 설명했다(Sun 1 November 1996). 파노라마 프로그램은(BBC의 대표적 시사 프로그램), 이전에는 분리되었던 학교 체계를 무리하게 합병한데 이러한 문제들의 이유-학교가 직면한 어려움-를 찾을 수 있는데, 단지 학생들이 통제를 벗어났다고 보다는, 학교 건물 구조의 열악한 상태나, 학교 직원의 사기저하와, 지역 교육청의 합부로 운영된 경영 때문이라고 했다. 하지만, 아동으로부터 위험을 느끼는 사람들은 단지 선생님들뿐만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일간지 Mail의 일면 머리 기사에는 “학교에서의 여학생 성폭행의 공포”에서 9살짜리 소녀가 5명의 남아에게 집단 강간을 당한 내용을 자세히 보도

하고 있다. 학교에서의 학생들은 “난폭해지고, 동료 학생들에게 공격적이고, 선생님에게 심한 욕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Daily Mail 9 May 1997).

방송 매체의 아동에 대해 적대적인 보도는 1990년대에 걸쳐 유지되었으며, 의심할 나위 없이 팽배했던 아동과 아동기의 순수성에 대한 가정에 도전했다. 하지만, 아동기 순수성에 대한 대중 인식의 분명한 전환점을 준 것은 James Bulger의 죽음에 대한 보도와 Jon Venable과 Babby Thompson의 재판이었다. 신문들의 표제에 실린 이 기사는 2살 유아가 사건 당시 10살이었던 두 소년에 의해 살해됨으로써 온 국민을 충격의 소용돌이에 몰아넣었다. 하지만, 너무나 많은 신문 편집장들이 기사들을 부당할 정도로 단순하게, 사회적으로 몰지각하게, 그리고 도덕적으로 비난 만할 뿐이다. 두 소년의 행동에 대해 설명해 줄수 있는 모든 경감 사유들을 무시하고 Thompson과 Venables를 ‘악적 존재’로 비난만 했던 것이다.

영국 방송 매체에서 Thompson과 Venables를 사탄화하는 것이 너무 광범위해서, 한 평론가는 ‘이런 상황이 전쟁시에 적들에 보낼만한 도덕적 분개의 폭발 정도’ 같다고 했다(King, 1995:2). 그러나 기사들은 두 소년들을 공격하는 것을 넘어서서 모든 아동들에게 적용돼야 할 아동기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제시했는데, 순수한 천사들에서 지금은 정면으로 작은 악마들로 대치시키려 하고 있다. Mail지는 “감성적”이고 “상대적으로 현대적” 관점이라 할 수 있는 “아동은 순수하게 태어났다”는 생각을 버렸다(Mail 25 November 1993). Times지는 전체 편집자들이 “아동기는 순수한때라 하는 빅토리아 시대이후부터 팽배했던 믿음”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했다(The Times 25 November 1993). “아동기는 과거사가 아마도 우리들보다는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어두운 면을 가지고 있다”라고 불확실한 입장 표명을 했다. Sunday Times는 정면으로 문제를 다루었는데, “만약 아동기가 순수의 나이라 한다면, 어떻게 이 열살짜리들이 살인자로 될 수 있을까?”라고 질문한다(28 November 1993). 정부의 정책적 반응은 “기본으로 돌아가기”로 응보적이었는데, John Major 수상의 유감스러운 훈령에 나타났듯이, “우리는 조금 더 비난하는 법과 덜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했다(Franklin and Petley, 1996).

III. “새로운” 아동들을 다스리기 위한 정책들

이런 걱정들은 두 주요 정당들의 정치가들이 청소년들의 관리와 억압을 강조

하고, 대중의 인기에 편승하는 집산적 정책들을 만들어내게 했다-많은 연구 결과들과 공식적 충고들이 이러한 정책들의 무용성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Cavadino and Dignan, 1997). 1991년 범죄 사법안(지역사회를 위한 결심으로서 보호가 필요한 범죄자에 대해 선택권을 줄 것과 3개의 'D'-전환 *Diversion*, 해금 *Decriminalisation*, *Decarceration*의 내용들은 1994년 범죄 사법 그리고 공법 안의 응보적 형벌 정책에 의해 대체되었다. 새로운 안은 12-14세를 위한 새로운 안전 훈련과 긴 감금과 전자 추적 장치를 요구했다. 1993년 보수당의회에서 국무장관 Home Secretary인 Michael Howard는 “어린 범법자들은 더욱 강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했다. “12-14세를 위한 ‘죄부대 *sin bins*’가 있을 것이고 15세에게는 더 오래 감옥에 복역하도록 선고될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17세이하 청소년에게는 지역사회에서 처벌이 더 강화될 것이라고 했다”(Express 7 October 1993). 2년후에 Time지는 권두기사로 “청소년 범죄자를 위한 ‘고통의 집 *House of Pain*’을 만드는 제도에 대한 Howard의 계획들”을 발표했다(6 February 1995).

새로운 노동당의 정책기조의 중심 또한 “통제를 벗어난” 아동과 청소년을 다루는 방법들에 대한 것들이었다. 1997년 일반선거에서 “범죄와 범죄 원인 제공들에 대처하는” 당의 의도는 청소년 범죄와 범죄 정의에 관련된 논쟁들에 대해 강한 입장을 표현한 것으로 잘 알려졌다.

정부에서는 새노동당 특히 국무장관 Jack Straw이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는 사려 깊은 정책을 추진하였다. 1997년 9월 Straws는 “50년 동안의 젊은 범죄자 처벌에 대한 가장 큰 경찰의 단속”에 관한 상담 자료들을 출판하였다. Straw는 “청소년 범죄자가 자신의 행동에 변명하려는 그리고 청소년 범죄를 용서해주려는 문화적 분위기를 깨야 한다..... 성인들도 아동들에 대한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부모들은 자기의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부모가 일찍 자녀 양육에 책임을 질수록 자녀들은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진다. 나의 제안들이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나이보다 하위에 있는 아동 나이에 관련된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주장하였다(Guardian 26 September 1997). 제안된 방안들은: 빠른 처벌에 대한 결심; “통제를 벗어난” 아동들의 부모들을 위한 좋은 부모되기 과목 의무적 수강; 아무리 (자녀 교육에 어려움이 있다하더라도) 부모가 자녀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 스코트랜드 남부 Lanarkshire의 세 지역에서 야간 통행 금지의 채택과 시도; 범죄에 관여하기 쉬운 10세 미만의 위험한 처지의 아동을 위한 안전 훈련; 경찰의 주의를 대신하여 최후 경고를 할 수 있는 “노란 카드 *yellow card*”제도, 그리고 *Doli incapax*-중세 시대부터 시작한 법적인 추정으로

서 10-14세의 아동은 옳고 그름의 차이점을 이해할 수 없어 결과적으로 범죄 의도에 대해 판단할 “능력이 없다고”함의 폐지 등이다. 이러한 많은 생각들은 미국에서의 현재 정책 경향과 영국의 아동과 청소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정책의 “미국화 현상”을 잘 나타내고 있다. 자명하게 표현되었듯이, Straw는 이러한 기준들이 “매우 강하게” 설정되었다고 했다(Guardian 22 September 1997): 이것들보다 약한 어떤 기준들도 90년대의 테블로이드 신문 기사들에 의해 형성된 대중 여론을 만족시켜주지는 못할 것이다.

1997년 12월 정부는 범죄와 무질서에 관한 법안을 공포했다. 보수 정책의 “감옥노동”의 대체로 표현된, 새로운 법안은 상담 문서에 표시된 여러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조항들은 청소년들을 향해 새로운 권위주의를 표현하고 있다. 정책 논쟁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법안에서 나타난 Straw의 연설은 설득력 있는 어조로 권한이 있다. “무인내(無忍耐)zero-tolerance 전략 채택”에 대해 주장하면서 “법을 준수하는 지역 사회에 힘을 부여하고, 폭력단, 마약 거래자, 범죄자 가족들과 이웃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파괴 분산시킨다는 것”이다(Guardian 4 December 1997). 현재까지 아동·청소년을 통제하는 조치들의 명단은 대중들의 인기 있는 지지를 얻어왔다. 이러한 것들은; 10세 이상 아동들에 의한 희롱을 대적하는 반 사회 행동 조치; 부모되기 조치; 아동 안전 조치; 야간 통행 금지; *Doli Incapax* 폐지; 피해자들을 위한 배상금과 청소년 범법자를 위한 최종 경고, 전자 추적 장치, 빠른 속도의 처벌과 복지적 역할을 해왔던 청소년 사법 체계에서 예방을 가장 큰 목표로 하는 청소년 범죄 정의 체계로의 전환이다.

이중 3가지 조치: 야간 통행 금지, 추적 장치, 그리고 최초의 “신병 훈련소”는 좀더 자세히 살펴볼 가치가 있다. 1997년 10월23일 실험적 야간 통행 금지가 6개월 동안 Lanarkshire의 3곳의 지방 의회 지역에서 실시되었다. 야간 통행 금지 상태에서는 저녁 8시이후 5명의 경찰관들이 팀을 이루어 어른과 동행하지 않은 청소년들을 검문하고 그들이 그들 자신에게나 타인에게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집까지 “호위”하여 데려다주었다. 4월, “실험 기간”이 끝났을 때, 청소년은 야간 통행 금지가 그들과 그들 부모의 관계를 불편하게 한다고 불평했고, 많은 아동들에게 합당하지 않은 불명예를 유발한다고 했다. 한 아동은 야간 통행 금지를 “웃기는 일”로 묘사했고, 다른 아동은 야간 통행 금지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멍청이들”이라고 했다(Guardian 17 April 1998).

지방의회가 10살 미만의 아동들에게 야간 통행 금지를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은 사회의 아동 권한에 대한 존중 부족을 의미한다. 우리는 다른 사회 단체에 그런 제한을 가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모든 범죄들의 90%가 남자들에 의

해 행해지므로, 예를 들어, 남자들에게 통행 금지를 적용한다는 제안은 모든 범죄를 거의 조절할 듯하다. 적어도 언뜻 보기에는 매력적이다. 분명히, 남자에 대한 통행 금지는 강간 비율을 절대적으로 낮출 것이라고 주장될 것이다. 하지만, 바로 그 제안에 대한 울부짖는 불평을 상상해보라-분명히 그런 불평이 생길 것이다. 단지, 사회 단체 안에 몇몇 사람들의 행동 때문에, 단체의 전체 구성원의 행동을 제한하는 것은 사회가 장려해서는 안 될, 단체 구성원의 권한을 끔찍하게 폐기하려는 것이다. 물론, 이 사회 단체가 아동들이라면, 그들의 권한에 대한 논의는 놀란 만큼 침묵에 이르게 된다.

두 번째 제안된 정책은 전자 추적 장치를 어리게는 10세의 아동들에게 석달에 이르는 기간동안 사용하자는 것이다. 1998년 초 실험적 계획이 Manchester와 Norfolk에서 설계되었다. 정책을 추진하려는 주된 동기는 경제적인 것이다. 추적 장치를 사용하는 데에 1년에 1,900파운드가 들지만, 보호 감시형을 유지하는 데에는 1년에 23,000파운드만 소요된다. 감옥들은, 더욱이, 차서 넘친다(Guardian 10 January 1998). 사회 통제의 “큰 형-전자 추적 장치”체제는 젊은 청소년들에게는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있다. 선행 실험에서 16-17세 청소년들이 연상의 범죄자들보다 2배 더 많이 전자 장치를 파괴했다. 같은 맥락상의 새로운 기술이 청소년을 억누르고 통제하기 위한 정부 노력으로 생기고 있다. 지속적 무단 결석자들의 부모들은, 아이가 결석할 경우 학교에 의해 연락이 취해지도록 호출기가 제공되었다. 부모들은 호출되어 전화로 학교에 그들 자녀의 결석에 대해 설명하도록 되어있다(Guardian 30 December 1997).

마침내, 1998년 4월 Borstal의 Kent마을 근처에 “아동 감옥-분명 근대 후기의 풍자적 색채가 나는 이름이지만” 세워졌다. Medway 안전훈련센터는 보수적 당에 의해 위임되었지만, 노동당에 의해 환영되어지고 운영되었다. 100명의 감독 직원들과 교육·양육·훈육의 훈련을 받은 40명의 “훈련자들”이 고용되었는데, 한 명의 훈련자를 위한 훈련비용이 일주일에 2,500파운드 소요되었다. 단체 4Group 4가 이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제도를 “활발하고 바쁜” 것으로 묘사하였다. 그리고 두운을 맞춘 요구사항들처럼 “짧고Short, 날카롭고Sharp, 충격적이다Shock”. 이 감옥이 고비용에도 불구하고, 비평가들은 이전의 비슷한 성격의 기관처럼 상습적 범행 비율을 줄이는데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고 빗대어 논쟁하였다. 이러한 정책들은 합리적이고, 연구 결과에 기초하고, 범죄나 청소년 범법 행위를 줄이기 위한 계획이라기 보다는 일부 정치가들과 일부 대중의 처벌과 응보에 대한 마음을 충족시키기 위한 듯하다. 센터를 열면서, 감독은 방송 매체가 아동과 청소년에 대해 보여주는 것을 확인이라도 하듯 “이들은 전국에서

최악의 범법자는 아니다. 살인을 한 것도, 강간을 한 것도 아니지만, 그들은 가장 지속적으로 범죄 행위를 한다. 그들이 이곳에 도착할 때까지 50번 이상의 도둑질과 차 절도를 했을 것이다”(Guardian 15 April 1998). 이런 기관이 “범죄대학”이나 “아동감옥”으로 묘사되는 것은, 수용자들이 12-14세임을 고려할 때 UN의 아동권리조약 참가국으로서 부끄러운 일이다.

IV. 아동기, 권한들, 그리고 방송 매체

1990년대 초, Cleveland 사건을 계기로 아동성적학대 문제는 대중사회에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해 사회가 아동을 지역 사회로부터 보호할 정책들을 철저히 요구하게 되었다. 1990년대 말 바로 그 사회가 지역 사회를 아동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아동·청소년의 행동과 아동기의 본질적 성격에 대한 대중의 인식 전환을 반영한다. 방송 매체의 일부 청소년에 관한 선정적이고, 편중되고, 극적인 보도는 이러한 대중의 새로운 분위기를 북돋는데 큰 영향을 미치었다. 만약, 이러한 반전이 단순히 기괴한 현상일 뿐이라면, 논평이 정당하지 않겠지만, 방송 매체의 아동·청소년에 관한 보도들이 영국의 각 아동·청소년의 권리 조망을 손상시키고 있다.